

【논문】

20세기 전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만들기*

정상우**

차례

- I. 서언 -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와 만주사 연구
- II. 만주사 체계화를 위한 조망과 통사 서술의 시도
- III. 통사의 대거 등장과 문화적 실체로서 만주의 민족들
- IV. 결어

국문초록

침략성과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양면성을 생각해 볼 때 만주는 흥미로운 지역이다. 러일전쟁의 이후 일본은 만주를 발판삼아 중국에 대한 이권을 확장해 나가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만주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개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국주의 국가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만주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연구자들이 서술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을 통해 당시 그들이 만주사에 대해 공유하였던 공통적인 지반은 무엇이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20세기 초반 만주사 연구를 이끌었던 시라토리의 조망에서 보여지듯이, 만주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은 만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 차원에서 체계화할 수도, ‘만주민족’과 같은 범주를 설정하여 민족사와 비슷한 형태로 할 수도 있었다.

만주사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만주사를 다룬 최초의 통사라 할 수 있는 이나바의 『滿洲發達史』(1915)는 만주사를 지역사로서 정리했다. 즉 만주를 몽고, 중국, 만주 방면의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 (NAHF-2019-기획연구-2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기초교육학부 부교수.

세력들의 각축장으로 보고, 이들이 만주라는 공간에서 벌인 경쟁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만주에 대해 중국의 우선권을 인정하였던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일본인 역사가들의 만주사 연구와 조망도 중국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만주를 몽고, 만주, 중국 방면의 세력들의 경합 지역으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조망한 것이었다. 이렇게 만주의 과거를 몇 세력의 경쟁지역으로서 정리하는 것은 19세기 후반 이래 만주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쟁을 만주사 전체의 당연한 귀결로서 역사화하며, 20세기 이래 만주를 둘러싼 일본의 행보를 만주사의 전개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여, 만주사의 무대 위로 일본을 소환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만주국의 건국은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만주국 탄생의 역사적 필연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만주사의 정립을 요구하였다. 만주사를 여러 세력들이 경쟁하는 지역의 역사로서 정리하는 것은 만주를 분쟁지역으로 역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만주국 건국 이후에는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만주국 건국 이후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만주사 정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했고, 당시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화답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당시 급하게 쏟아져 나온 통사들은 당대에도 그 수준을 의심받았지만, 만주의 과거를 만주 또는 만몽의 민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통사들은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의 상무정신, 고유한 활력을 이야기하며 만주에 처음 등장한 민족으로서 肅愼을 부각하며 만주사의 기원을 더 먼 과거로 소급하는 한편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서술하였다. 이는 비록 중국문명에 비했을 때 저열한 것으로, 또 중국 문명과의 접촉 이후 밀려나는 것으로 서술되었지만 만주·몽고 민족 고유의 생활 풍습·풍속, 제천의식·종교, 고유의 조직 체제는 물론 漢文과 대비되는 고유 문자의 존재는 만주와 몽고 민족의 민족적 독자성에 대한 증거로 강조되었다. 이렇게 민족을 중심으로 만주사 서술을 시도한 것은 독립국가로서 신생 만주국의 역사성을 드러내려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만주사 서술을 둘러싼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역사가들의 시도는 이른바 근대 역사학으로 무장한 일본인 연구자들이 만주에서의 이권 확보와 만주국 건국이라는 일본이 당면한 현실에 부응하며 벌인 역사 만들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 식민주의 역사학, 만주사, 통사, 만주국, 지역사, 민족사

I. 서언 -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와 만주사 연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주변으로 침략·지배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침략과 그 합리화 및 통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침략지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했다. 이는 제국인 자신들에게도 낯선 침략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로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제국은 자신들이 구축하여 제도화한 다양한 '근대 학문'들을 동원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역사학은 침략지의 과거를 제국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데에 유용한 학문이었다. 이는 대만과 한국을 넘어 만주로 침략을 확장하던 일본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제국주의 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일본 역시 침략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연구자들은 침략지의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한국 학계에서는 이를 '식민사학', '식민주의 역사학'(이하 '식민주의 역사학'으로 통칭)이라 하며, 당시 일본인들의 연구는 제국과 식민지의 역사적 관련성을 주장하고, 식민지화의 원인을 침략지의 역사에서 찾으려 자신들의 침략을 식민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평가하여 침략과 지배를 미화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서구 제국을 모방·학습하며 뒤늦게 제국으로 변모했던 일본의 근대화는 제국주의화와 거의 동시적이었다. 이는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던 바, 19세기 말 이래 일본이 주변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던 때는 근대적인 학술 제도로서 대학이나 연구소, 학회, 사료편찬소 등이 구축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근대 역사학의 세례를 입은 일본인 연구자들은 침략에 조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확립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해 한국학계에서는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도 꾸준히 그 연구 성과를 발표해 왔다. 연구 초기에는 식민주의 역사학을 '정체성론', '타율성론' 등과 같이 사관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그 역사 왜곡의 양상과 침략성을 규명했다면, 근래에는 이와 더불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대 역사

학으로서의 속성을 주목하며, 그 면목을 일신하고 있다.¹

한편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와 불가분한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성립·전개 과정은 ‘동양’·‘동양사’의 창출 과정이라고 이야기된다.² 즉 일본에서 근대 역사학의 확립·전개는 중국을 대신하여 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일본의 팽창에 따라 일본의 힘이 미치게 된 지역들의 역사를 제국 일본의 관점에서 서술하여,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하던 세계관을 부정하는 한편 일본 중심의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했던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19세기 말 이래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전개·확산된 식민주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침략에 조응하며 ‘동양’이라 새로운 역사 공간을 창출하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만주는 흥미로운 지역이다. 러일전쟁의 결과 만주에서의 이권을 확보한 일본은 이후 이를 발판으로 중국에 대한 이권을 확장해 나가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만주사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했다. 러일전쟁 결과 확보한 長春-旅順간 철도 부설권과 그 부속지 경영을 위해 설립된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 산하에 ‘만선역사지리지조사부’(이하 ‘조사부’)가 창설되어 그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더군다나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에게 만주는 그 주권은 중국에게 있지만 중국이 권력이 미치지 않아 러시아와 일본이 없었다면 ‘馬賊의

-
- 1 식민주의 역사학의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면모를 주목하는 근래의 연구들로, 그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윤해동·이성시 엮음, 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책과 함께; 윤해동·장신 엮음, 2018, 『제국 일본의 역사학과 ‘조선’』, 소명출판; 윤해동·정준영 편, 2018, 『경성제국대학과 동양학 연구』, 도서출판 선인; 정상우, 2018, 『조선총독부의 역사 편찬 사업과 조선사편수회』, 아연출판부.
 - 2 19세기 말부터 일본에서 표방된 ‘동양’은 ‘서양’과 대비되는 개념이자 ‘아시아’, ‘중화’라는 개념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본(사)’의 전제 혹은 타자로서 창출·전개된 개념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Stefan Tanaka, 박영재·함동주 譯,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濱下武志, 2008, 「동아시아 地政文化는 성립하는가? - ‘동양사’의 출현과 근대 일본」, 『大東文化研究』63; 신현승, 2015, 「동아시아 표상과 자타 인식」, 『제국 지식인의 패러독스와 역사철학』, 태학사.

巢窟'이 되었을 '기묘한 상태'에 있는 곳으로,³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함은 물론 중국의 무기력함을 드러내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역사 공간으로서 '동양'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또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에 있어 만주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데에는 당시 일본사나 한국사를 정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근대 역사학은 '민족'을 하나의 역사 서술의 단위로 설정하여 그 '발전/퇴보'의 과정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진, 거란, 몽골 등 다양한 민족들이 명멸하며, 계승 관계가 불분명하게 단속적으로 왕조들이 건설되었던 만주를 어떻게 하나의 역사 단위로 설정하여 체계화하는가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1932년 '만주국'의 등장은, 그것이 국제적으로 다수의 열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 건국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 단위로써 '만주'의 역사에 대한 정리·체계화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즉 당시 일본인 역사가들은 일본의 대륙침략에 따라 일본인들에게 급격히 관심 지역으로 부상한 만주를 하나의 서술 단위로 설정하여, 그 역사를 체계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하겠다. 때문에 20세기 전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정리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역사 만들기'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에 대해 한국학계에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비록 식민주의 역사학의 양면성 - 침략성과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속성 - 을 포착하며 시각을 일신하고 있지만, 그 관심 대상은 일본인 역사가들의 한국사 연구 - 한국사에 대한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⁴ 식민주의 역사학의 대상이 한국사를 넘어 '동양'의

3 白鳥庫吉, 1912, 「滿洲問題と支那の將來」, 『中央公論』27- 6(여기서는 1971년에 출간된 『白鳥庫吉全集』10, 148쪽에서 인용하였다).

4 다만 최근 대표적인 만선사학자로 거론되는 稻葉岩吉의 만주사 연구와 1938년에 개교한 만주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된 역사 연구와 교육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정상우, 2019a, 「지역사에서 민족사로」, 『만주연구』27; 정상우, 2019b, 「식민주의 역사학으로서 만주건국대학교에서의 역사 연구」, 『동북아역사논총』64). 하지만 이는 稻葉이라는 개인, 또는 만주건국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연

창출 과정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연구 경향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 논문은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 경향을 당시 발간된 만주사에 대한 通史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필자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에 의해 통사적 접근이 시도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사 서술은 특정 시대나 주제를 넘어 전시대에 걸쳐 그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연구자들이 만주사에 대한 통사를 서술·발간한다는 것은 당대 일본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만주의 역사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통사 서술은 연구자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의 연구 성과들에 입각하게 된다. 때문에 만주사에 대한 통사를 통해 당시 학계의 연구 경향과 관심 역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20세기 전반기 일본인 연구자들이 서술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을 통해 당시 그들이 만주사에 대해 공유하였던 공통적인 지반은 무엇이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고찰하려 한다. 한편 러일전쟁 이후 만철 조사부의 창설과 함께 본격화된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 특히 그 통사적 접근과 서술을 보면 만주국 건국 이후인 1930년대 중반에 대거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에서 본격적인 만주사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조사부 설립 전후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에 대한 조망과 통사 서술 시도에 대해 정리하겠다. 이후 만주국 건국 전후에 등장한 만주사에 대한 논의들과 통사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초기의 시도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은 1930년대 접어들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왔

구·교육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역사 연구 관련 활동을 언급한 것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5 1930년대 이래 발해, 금을 연구한 外山軍治 역시 1945년 이전 일본에서 만주사 연구의 획기로 러일전쟁, 만주국 건국을 꼽았다(外山軍治, 1967, 『日本における滿洲史研究』, 『歴史教育』15-9·10, 75쪽).

으며, 종종 ‘滿洲國史’라는 용어가 서명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유의하여 1930년대와 그 이후에 등장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을 통해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 연구가 어떠한 변화를 거쳤으며, 그 서술에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II. 만주사 체계화를 위한 조망과 통사 서술의 시도

근대 일본에서 만주사 연구가 본격화된 계기로 러일전쟁 이후, 도쿄제대 교수로서 일본 역사학계를 이끌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구상과 노력으로 만철 산하에 조사부가 설치된 것을 꼽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⁶ 이렇게 일본에서 본격적인 만주사 연구의 출발점이었던 조사부의 작업에 있어 조사부 설치의 산파이자 리더였던 시라토리는 ‘歷史의 基礎는 地理에 있다’며 조사부원들의 임무로서 만주 지방의 ‘史的地理’에 대한 연구를 꼽았다.⁷ 실로 만주사와 관련한 조사부 작업의 결과물인 2권의 『滿洲歷史地理』는 漢에서 淸初까지를 대상으로 만주에서 세력을 떨친 주요 왕조들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등장하는 각종 지명, 교통로, 경계 등을 비정하는 것이었다. 만주사 연구 초기였던 당시 이렇게 만주의 역사지리에 대한 사항을 규명하는 것은 향후의 연구를 위한 발판을 놓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만주사에 대한 서술 내지 서사라고 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漢 이래의 漢族과 북방민족들의 역대 왕조 순에 따라 중국과 만주의 역사지리적 사항을 규명한 『滿洲歷史地理』에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명멸했던 만주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체계화하려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조사부 설치 전후 시라토리는 만주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종종 제시하였다. 조사부 설치 직전인 1907년 시라토리는 ‘歷史上에서

6 1967년 外山의 분석은 최근까지도 큰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塚瀬進, 2014, 『マンチュリア史研究』, 吉川弘文館, 19~22쪽.

7 白鳥庫吉, 1913, 「序」, 『滿洲歷史地理』1, 6쪽.

滿洲의 地位'라 한편의 글을 통해 만주사 전반에 대한 자신의 조망을 밝혔다. 만주사에 대한 그의 조망은 유라시아 역사에 대해 자신이 설정한 '文'의 남과 '武'의 북 사이의 투쟁 과정이라는 남북이원론⁸ 및 스스로 '역사의 기초'라고 밝힌 지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는 만주사를 조망하기에 앞서 만주의 지리적 범위는 남북으로는 오호츠크해에서 보하이해, 동서로는 長白山에서 大小興安嶺에 이르는 지역으로, 흑해 - 카스피해 - 파미르 고원 - 만리장성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남북분계선 동쪽 끝에 직각을 이루며 남북으로 연장된 장소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남과 북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장소였던 만주는 '支那, 蒙古, 통구스' 세 민족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세 민족의 각축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국가를 건설해도 그 수명은 길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민족이 만주라는 범위를 벗어나 세력화하면 만주 전체를 호령하게 되는데, '蒙古種에 속하는 契丹'과 '통구스종에 속하는 女眞'은 이를 증명하는 실체였다. 반면 漢인이 세운 왕조로서 만주를 판도에 넣은 왕조는 없었다. 濊貊, 朝鮮을 정벌했지만 肅愼과 挹婁를 屬民으로 삼지 못한 漢武帝, 심지어 漢族 최전성시대를 이끌었지만 靺鞨, 契丹 등을 '支那屬民'으로 만들지 못한 唐의 太宗과 高宗이 보여주듯이 漢人は 만주를 장악하지 못했으며, '支那人'은 만주에서 盛京省을 벗어나지 못했고, 松花江, 黑龍江 유역까지 영유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것이다. 만주 전체를 영유했던 것은 몽고에서 일어난 元이나 만주에서 등장한 淸이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만주의 주권을 장악하는 것은 漢人이라기 보다는 몽고 또는 통구스라는 것이 시라토리의 이야기였다.⁹

8 白鳥庫吉 역사학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남북이원론은 유라시아를 '오리엔트'(동)와 '옥시덴트'(서)의 구분하던 서구인들의 개념을 '文'의 남과 '武'의 북으로 대체한 것이었다. 이는 서구인들에 의해 서구의 과거이자 후진적인 사회인 '오리엔트'로 파악되었던 아시아를 문명의 발상지로 위치지으며 '오리엔트'로부터 일본을 탈출시키는 것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이라는 공간을 구성해내는 전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략의 골격은 러일 전쟁 당시까지 형성되었다고 한다(이에 대해서는 Stefan Tanaka, 박영재·함동주 譯, 앞의 책, 145~159쪽).

9 白鳥庫吉, 1907, 「歷史上に於ける滿洲の地位」, 『斯民』2-1, 15~18쪽.

시라토리 스스로 자신의 논의를 ‘만주라는 땅이 아시아 대륙 남북 두 세력으로부터 항상 침해를 받아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정리하듯이, 이는 만주의 역사를 지역사 - 支那, 몽고, 퉁구스라는 세 세력의 투쟁 장소 - 에 가까운 형태로 조망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민족들에 의해 여러 정치세력과 왕조가 명멸했으며, 이들 사이의 계승 관계 역시 불분명했던 만주의 역사를 - 시라토리 자신이 예를 들었던 ‘蒙古種에 속하는 契丹’, 元 등 까지도 포괄하며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시라토리는 만주사를 ‘만주라는 땅’의 역사 - 일종의 지역사로 정리한 후, 글의 말미에서 ‘조선반도 방면’에서 만주를 침략한 적이 있는가라고 자문하고, 고구려를 거론했다. 그는 ‘만주 지역을 동쪽에서부터 침략하여 이를 영유한 것은 고구려뿐’이지만, 고구려는 扶餘族의 별종으로 ‘滿洲民族’의 하나이기 때문에 ‘조선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언급을 덧붙이며,¹⁰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일부가 아니라 만주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했다. 사실 시라토리와 같이 만주라는 지역의 남동쪽 경계를 長白山으로 할 경우, 만주사의 일부로서 고구려사를 언급하는 데에는 모호함이 남는다. 고구려의 범위가 시라토리가 제시한 만주의 범위, 특히 장백산을 벗어나 대동강 일대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만주를 시종일관 ‘만주 지역’, ‘만주라는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역사를 이야기하던 시라토리가 오직 고구려에 대해서만은 고구려인의 종족적 계통 관계를 거론하고 ‘만주민족’ - ‘민족’이라는 개념을 끌어온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자신이 설정한 만주 밖에서도 활동한 고구려를 만주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로서의 만주가 아니라 ‘만주민족’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논의를 발표하고 나서 2년 후인 1909년에 시라토리가 ‘만주민족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서 시라토리는 2년 전 별다른 정의를 내리지 않았

10 白鳥庫吉, 위의 논문, 19쪽.

던 ‘만주민족’을 먼 옛날부터 만주에 살았던, 우랄알타이 산맥의 동서에 걸쳐 분포하는 우랄알타이 인종 가운데에서도 시베리아 동부에서 黑龍江 지방에 걸쳐져 있었던 ‘통구스’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들이 黑龍江 부근에서부터 남하하여 지금의 만주에 들어와 아주 먼 과거부터 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퍼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시라토리는 바로 이 ‘통구스 = 만주민족’의 과거를 이들이 건설한 왕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遼東에서 北滿洲 방면까지 확대되었지만, 그 서북쪽에 鮮卑가 있었고, 그 남방에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남북 양쪽 방향에서 더 이상 신장될 수 없었으며, 결국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뒤를 이은 것은 발해이다. 역시 통구스로 구성되었으며, 고구려와 거의 같은 위치를 점했던 발해는 契丹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정치 세력화했던 것은 金을 건국한 女眞이었다. 이들은 몽고인 - 칭기스칸과 그 사촌들에 의해 붕괴되었지만, 이후 중국의 明이 遼河方面으로의 몽고인 침략 및 입진왜란으로 타격을 입게 되자 다시 淸을 건국했다는 것이다.¹¹ 이와 같이 遼河를 중심으로 그 동서에 넓게 분포하여 살았던, 이른바 ‘만주민족’이 창건한 왕조를 ‘高句麗 - 渤海 - 金 - 淸’으로 계보화하는 것 역시 만주의 역사를 체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주사를 정리하면 ‘만주민족’이라는 하나의 개념 아래에서 만주사가 정리되며, 고구려는 안정적으로 그 일부로 포섭된다. 하지만 이 경우 만주의 과거를 세 세력의 투쟁 지역으로서 정리할 때 자신이 이야기한 ‘蒙古種에 속하는 契丹’이나 元 등은 ‘만주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만주사에서 배제된다.

당시 학계의 최고 실력자로서 조사부의 창설·연구를 이끌었던 시라토리의 이러한 조망은 일본에서 만주사 연구가 본격화했던 20세기 초반 당시의 학계에서 만주사에 대한 체계화 방식은 적어도 두 가지 - 여러 세력의 투쟁 지역으로서의 만주사, 만주민족의 역사로서의 만주사 - 가 있었으며, 각각의

11 白鳥庫吉, 1909, 「滿洲民族の過去」, 『東洋時報』132(白鳥庫吉, 1971, 『白鳥庫吉全集』9, 327~329쪽).

방식에 따라 고구려, 거란, 원 등이 만주사의 일부가 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부는 만주사 연구의 기반이 되는 그 역사지리 관련 사항을 규명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만주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후 이 분야의 연구자들을 길러냈다는 점에서도 일본에서 만주사 연구를 본격화시킨 계기였다. 당시 조사부에 소속되었던 마쓰이 히토시(松井等),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쓰다 쇼키치(津田左右吉) 등은 일본 주요 대학의 교수,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 등으로 성장하여 일본의 학계와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를 이끌며 만주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만주사 전체에 대한 최초의 통사적 시도 역시 이들 가운데에서 등장했는데, 바로 이나바가 1915년에 발간한 『滿洲發達史』가 그것이다.¹² B.C. 3세기 燕과 東胡의 접촉에서 20세기 초까지를 다룬 『滿洲發達史』는 明·清代의 만주를 증점적으로 서술했지만, 책의 전반 170여 페이지를 明代 이전의 만주에 대해 서술하며, 만주사에 대하여 통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¹³

여기서 그는 만주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자 만주사를 이해하는 원리를 ‘滿蒙은 불가분’, ‘朝鮮은 滿蒙과 不可分’이라는 두 개의 경구로서 제시했다. 먼저 ‘만몽불가분’은 만주사를 바라보는 이나바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만주와 몽고 어느 한쪽에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면

12 이하 서술한 『滿洲發達史』에 대한 사항은 정상우, 2019a, 앞의 논문, 165~173쪽 참고.

13 『滿洲發達史』가 명청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당시 稻葉의 연구 경험과 이 책이 발간된 1915년 당시 만주사에 대한 일본 역사학계의 연구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부에서 稻葉는 명청대의 만주를 담당했다. 또 清代는 러일전쟁 이후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일본에서도 다른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았다. 반면 그 이전의 만주사에 대한 연구는 1915년 당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고구려에 대해서는 한국고대사에 대한 연구에서 종종 있었으며, 1915년에 근대 역사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발해사에 대한 최초의 통사인 『渤海史考』가 발간되었다(鳥山喜一 著). 반면 白鳥가 만주사를 조망하며 거론한 거란, 여진, 몽골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부가 도쿄제대로 이관하고 1915년 12월부터 논문집 형태의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가 발간되면서 津田, 池内, 松井, 箭内 등에 의해 만주 일대 고대 민족들, 거란·여진·몽골 및 이들과 唐·宋 및 고려와의 관계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한쪽을 ‘併呑’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주와 몽고에 비슷한 세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두 세력은 남북만주의 분계선인 ‘奉天에서 長春에 이르는 一線’을 경계로 대치하는데, 두 세력이 손을 잡으면 ‘支那人’은 강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중국은 만주와 몽고의 세력 중 어느 한쪽이 커지지 않도록 이들을 갈라놓으려 하며, 양자 사이에서 한쪽과 손을 잡고 다른 한 세력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¹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라토리는 장백산을 만주의 한쪽 경계로 하며, 만주사를 ‘支那, 蒙古, 통구스’ 세 민족의 접촉지였던 만주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패권 다툼의 과정으로 조망하면서도 고구려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에는 ‘만주민족’이라는 개념을 추가했으며, 아예 ‘만주민족’을 중심으로 한 만주사의 체계화도 시도했다. ‘만몽불가분’이라며 만주를 만주, 몽고, 중국 세 세력이 경쟁과 견제가 벌어진 장소로 바라본 이나바의 사고방식은 만주사를 일종의 지역사로서 바라보는 시라토리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나바는 만주사를 조망·체계화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깰 수 있는 ‘만주민족’과 같은 별도의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라토리에 비해 만주의 지역적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조선과 만몽의 불가분’이 바로 그것인데, 만주의 남동쪽 경계를 시라토리가 말했던 장백산에서 보다 더 끌어 내린 것이다. 이나바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과 만주의 경계는 압록강과 장백산이 아닌 大同江에서 元山津을 잇는 선이었다.¹⁵ 즉 이나바는 대동강 이북의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만주로 본 것이다. 만주의 지역적 경계를 이렇게 설정하면 만주사는 몽고, 중국, 만주라는 세 세력의 힘이 교차했던 지역의 역사라는 일관된 논리 구조 속에서, 거란이나 원은 물론 고구려로 대변되는 북부까지도 만주사의 일부로 포섭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나바가 만주사의 시작으로 B.C. 285년 燕의 昭王이 遼河 하류 유역을 東胡로부터 탈취한 것을 거론한 이유도 바로 만주사를 만주라는 지역에서 벌

14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4~9쪽.

15 稻葉岩吉, 1915, 위의 책, 10~11쪽.

어진 여러 세력들의 접촉과 투쟁의 과정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明代 이전 시기를 만주에 거처했거나, 만주를 장악한 세력을 읍루, 부여, 고구려, 발해, 거란(遼), 여진(金), 몽고(元)의 순서로 여러 세력의 소장에 따라 그 추이를 서술하였다. 특히 고구려에 대한 서술에서는 고구려를 眞蕃에 연결시킨 後漢 應劭 이래의 설명들은 모두 오류라며, 고구려의 시조 朱蒙은 夫餘의 亡人이었다는 것을 재론하는 한편 후한 시대 이래 발달한 고구려가 받아들인 전성기 北魏 문화가 일본에도 들어왔으며 일본을 만주와 연결짓기도 하였다.¹⁶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滿洲發達史』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명·청대의 만주이다. 특히 이 부분은 ‘만몽불가분’이라는 이나바의 인식과 만주사를 지역사로서 정리하는 그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명의 전성기를 이끈 永樂帝의 성공 비결은 새외민족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영락제는 즉위 과정 - ‘靖難의 變’에서 몽고인 집단(兀良哈)은 물론 북만주의 여진인들을 이용했으며, 황제가 된 이후 만주의 여진인이 몽고인과 연결되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일찍이 예측하여 오이라트를 공격할 때 여진인들을 종군시켜 양자의 관계 단절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建州衛, 海西衛 등을 창설한 이래 거듭 璽書를 발급하며 여진인들의 결합을 막았다.¹⁷ 이를 통해 명은 안정과 패권을 찾았지만, 영락제 사후 곧바로 위기 상황에 닥친다. 바로 오이라트가 몽고 방면을 통할하면서 이들 세력이 만주에까지 미친 것이다. 더군다나 몽고 정벌을 함께한 대가로 여진인들에게 나누어 준 璽書는 正統·天順年間(1436~1464)을 거치며 무의미해져, 명의 對 여진정책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가운데 嘉靖年間(1465~1522) 다얀칸이 몽고 방면을 통일한 후 명을 압박했고, 16세기 말의 임진왜란은 명의 재정에 근본적인 타격을 주어 遼東에 대한 명의 위력이 크

16 稻葉岩吉, 1915, 위의 책, 84~90쪽, 118~120.

17 稻葉岩吉, 1915, 위의 책, 199~237쪽.

게 약화되어, 누르하치가 두각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¹⁸ 이렇게 보았을 때 明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만주와 몽고를 분리시키고, 여진 인들끼리의 결집을 막는 대외정책의 결과로, 만몽불가분이라는 만주사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는 淸의 건국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淸太祖는 建州에서 일어난 이래 서방으로 진출함에 따라 西藏의 라마승을 불러오고 몽고 방면의 코르친, 카라친과 연이어 회맹한 이후 이들의 협력을 얻으며, 즉 만몽을 결합한 이후에 北京을 공격했다는 것이다.¹⁹ 淸의 건국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 이후 이나바는 淸代를 여진족의 흥망성쇠가 아닌 淸의 朝廷이 만주라는 지역에 대해 펼친 封禁 정책과 그 해체 과정으로 만주사 서술의 후반부를 꾸몄다. 입관 이후 자신들의 발상지 수호를 통한 國俗 보호 및 만주 일대의 천산물 독점을 위해 시행한 만주 봉금은 18세기 중반에 들어 변화를 맞이하였다. 입관 이후 만주팔기의 증가, 물가 상승과 기인들의 토지 방매로 인하여 만주의 토지를 기인들에게 분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인들은 이마저도 漢人들에게 전매하며 만주 封禁은 해체되었으며,²⁰ 南京條約 이후로는 서구 열강들까지 만주에 개입하여 혼란이 격화되는 속에서, 만주는 물론 몽고 지역까지 세력을 뻗친 러시아 세력을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저지했다는 것이다.²¹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세기 초 일본에서 만주사 연구가 본격화되었을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 - '지역'과 '민족' - 으로 만주사를 조망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사부에서 만주의 역사지리적 사항에 대한 연구 이후에 등장한 통사는 만주를 역사적으로 몽고, 만주, 중국 방면의 세 세력이 접촉하며 경쟁하는 지역으로 바라보고, 이 지역에서 벌어진 세력들 간의 경쟁과 투쟁의 과정으로 만주사를 사고하는 모습을 띄었다. 이는 중국

18 稻葉岩吉, 1915, 위의 책, 345~385쪽.

19 稻葉岩吉, 1915, 위의 책, 396~398쪽.

20 稻葉岩吉, 1915, 위의 책, 587~661쪽.

21 稻葉岩吉, 1915, 위의 책, 740~748쪽, 771~777쪽.

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던 만주에 대해, 그 역사적 전개에서는 중국을 그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위치짓고 당시 만주에서 벌어지고 있던 열강들의 이권 확보 경쟁을 만주사의 전개에서 늘 있어 온 모습으로 역사화하는 한편 만주사라는 무대로 일본을 불러올린 것이었다.

Ⅲ. 통사의 대거 등장과 문화적 실체로서 만주의 민족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워싱턴 회의에서는 중국에서 서구 제국의 이익 균점을 위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존중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에서는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을 보장받기 위한 논의가 일었으며, 특히 교토제대 사학과 교수 야노 진이치(矢野仁一)는 1920년대 이래로 중국은 국민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확정된 영토 개념이 없다는 ‘支那無國境論’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주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며, 워싱턴 체제를 부정하는 논의를 주도했다.²² 야노는 1930년 역사적으로 볼 때 만주가 중국의 영토로 귀속된 적이 없었으며, 만주에 중국세력이 미쳤다 해도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한 편 발표했다. 이러한 논의는 역사적으로 만주에 대한 중국의 연고권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 유지와 확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²³ 이러한 논의에 대해 당시 일본의 역사가들도 현실문제에 ‘貢獻’하려는 열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근대 국가의 영토권이라는 개념을 과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²⁴ 하지만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역사적으로 부정하는 논의는 확대·강화되었다.

만주국이 건국된 지 정확히 1년 후인 1933년 2월, 일본에서 만주사 연구를 본격화시킨 장본인이자 학계의 최고 거물이었던 시라토리는 ‘歷史上에서 본 滿洲國’이라는 제목으로 만주사 전반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여기서 그

22 중국에 대한 矢野仁一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형식, 2016, 「‘支那通’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중국 인식과 對中政策」, 『史林』58을 참고.

23 矢野仁一, 1930, 「日本の滿洲に於ける歷史上の地位を論ず」, 『東亞』3-1, 4~6쪽.

24 歷史學研究會 編, 1936, 『滿洲史研究』, 3~4쪽, 290쪽.

는 자신의 지론인 남북이원론에 입각하여 아시아 지역을 남방의 경작지, 중앙의 사막지대, 북방의 삼림지대로 삼분하고, 이를 각각 ‘支那(漢)民族’, ‘蒙古의 遊牧民族’, ‘通古斯 民族’에 대응시킨 후,²⁵ 이들의 각축과정으로서 태고에서 만주국 출현까지 만주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이는 만주사에 대한 과거 자신의 조망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글의 말미에 만주 지역을 통치한 왕조를 나열한 후 漢民族의 만주 통치는 공간적으로는 ‘南滿의 일부인 奉天省뿐’이며, 그 ‘實際 統治의 年數’는 ‘滿洲 3천 년의 歷史에서 7百年’이고, 나머지 ‘2千幾百年은 通古斯나 蒙古, 혹은 그 雜種’이 만주의 주인이었을뿐만 아니라, 만주를 ‘漢民族이 통치했던 漢·唐·宋·明·民國 시기에도 각 왕조의 盛時에만 점거했으며, 그 왕조 내내 점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글을 마쳤다.²⁶

이처럼 역사적으로 만주에 미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논의는 시라토리의 강연과 같은 해에 발간된 야노의 『滿洲國歷史』(1933)에서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²⁷ 야노는 책명을 ‘滿洲國歷史’라 하고, 책의 중심을 이루는 만주사 서술에 대해서도 ‘滿洲國史’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만주사를 ‘國史’로서 정리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지만, 그 서술은 만주에 중국세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자신의 과거 논의를 확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전국시대 이래 삼국의 서진시대까지 중국세력은 만주에 세력을 뻗지 못했으며, 漢族 세력이 미쳤던 남만주에서조차 만주의 종족과 경합하는 수준이었고, 元에 이르기까지 만주를 지배했던 것은 만주종족과 몽고종족이었다는 것이다.²⁸ 그나마 중국세력이 만주에 영향력을 미쳤던 唐, 明代에도 遼河 유역에 安東都

25 白鳥庫吉, 1933, 「歷史上より觀たる滿洲國」, 『東洋』36-3, 11~12쪽.

26 白鳥庫吉, 위의 논문, 27쪽.

27 6장으로 구성된 矢野의 『滿洲國歷史』는 만주사에 대한 통사적 조망과 당시 국제정세와 이에 따른 만주국의 건국과 미래에 대한 시론적 성격의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만주사에 대한 통사적 조망은 ‘滿洲國史梗概’로 명명된 3장으로 책의 절반을 조금 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28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目黒書店, 104~134쪽.

護府가 있던 수십 년간 다수의 都督이나 縣令은 고구려인이었다는 것이나, 遼東·遼西에 대한 明의 지배는 중국의 다른 省들과는 달리 군사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松花江이나 黑龍江 유역은 중국의 지배 밖에 있었다는 서술은²⁹ 만주에 미친 중국 왕조의 권력은 지역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시라토리의 논의와 유사한 것으로, 만주의 실질적 지배자는 만주인과 몽고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특히 만주사의 시작, 바로 전국 시대 燕의 秦蓋가 東胡族을 공격한 이래 만주에 중국의 주권이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서술은 자신의 이전 주장을 확장하여 만주의 영토적 독자성과 더불어 만주사는 출발 이후 중국과 별개였다며 ‘만주국사’의 존재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만주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한 국제연맹의 결정을 반박하며 일본의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서이든, 만주사의 독자적 존재 가능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든, 역사적으로 만주에 중국세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이 정당화되지도, 또 만주의 역사가 체계화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가장 이른 시기에 착목했던 것은 이나바와 함께 조사부에서 『滿洲歷史地理』의 집필을 담당했으며, 이후 고쿠가쿠인(國學院) 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마쓰이 히토시(松井等)였다. 그는 일찍이 만주에 중국세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야노의 초기 논의에 대해서 ‘그 快辯에 敬服’한다면서도 ‘日露戰爭 이전 만주의 역사를 가지고 戰役 이후의 만주를 비판하는 것은 지당하지 않’으며, ‘支那’라는 말 속에 내포된 중국인의 지역 관념상 만주와 중국의 구분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³⁰ 즉 마쓰이는 만주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을 부정하는 것이 러일전쟁 이후 획득한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 보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은 물론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을 전후해서는 「滿洲史要領」이라는 논문을 연재하여 태고에서 현재에 이르는 만주의 역사를 조망하는 가운데 하나의 기준에 입각하여 만주사에 대

29 矢野仁一, 위의 책, 113~115쪽, 146~154쪽.

30 松井等, 1930, 「滿洲に於ける日本の地位(矢野仁一君の論文に因みて)」, 『東亞』3-2, 6쪽.

한 시대구분을 시도했다. 여기서 마쓰이가 제시한 시대구분의 기준, 바로 ‘滿洲史의 本體’는 ‘滿洲에서 漢民族勢力의 進退消長の 經過’였다. 그는 이에 입각하여 중국세력과 東胡의 충돌이 발생했던 燕昭王이 즉위한 B.C. 311년, 북방세력에 쫓겨 화남지방에서 東晉이 건국된 318년, 唐이 멸망한 907년, 明이 등장한 1368년, 淸이 건국된 1616년을 기점으로 만주사를 구분하였다.³¹

이는 만주사를, 漢民族 중심으로 파악하여 중국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하지만 마쓰이의 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만주사의 본체라고 말한 만주에서 漢民族 세력의 진퇴는 ‘滿洲의 여러 部族과 漢民族의 對抗關係’ 속에서 나타나며, 또 양자의 ‘對抗關係’는 ‘蒙古方面에서 나타나는 여러 部族勢力’들에 의해 변한다. 때문에 만주사는 ‘漢·滿·蒙 세 民族勢力交錯의 變遷을 說明하는 것’으로, ‘漢民族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만몽의 여러 부족만을 구성 요소로 하여 성립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볼 때 마쓰이의 논의는 과거 시라토리나 이나바의 논의에 가까우면서도,³² 여러 세력이 교착하여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정리하기 어려운 만주의 역사를,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이자 계승 관계가 명확한 중국 왕조들의 만주에서의 세력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그 역사를 통괄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국인의 지역 관념상 만주와 중국이 구분되지 않는다며, 중국세력의 만주 진출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시대구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마쓰이의 논의는 국제연맹의 결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만주사의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비추어진다. 하지만 마쓰이의 시도 역시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 보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31 松井等, 1931, 『滿洲史要項』, 『東亞』4-8, 36~38쪽. 그가 시도한 시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第1期 漢民族勢力 進展時代: 기원전311(燕昭王 즉위)~318년(東晉건국)의 약 600년.
 第2期 第1次 漢民族勢力喪失竝に恢復時代: 318~907년(唐멸망)의 약 600년.
 第3期 第2次 漢人勢力喪失竝に恢復時代: 907~1616년(淸건국)의 약 700년.
 (3기를 1368년(明건국)까지 약 460년에 이르는 第2次 喪失期과 1616년까지의 第2次 恢復期로 세분)
 第4期 第3次 漢人勢力喪失竝に恢復時代: 1616~今日(1931)의 약 320년.

32 만주를 만주, 몽고, 중국의 교차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시작을 중국과 만몽 세력의 접촉이 보이기 시작한 燕昭王 이래로 보는 것 역시 과거 이나바와 마쓰이에게 공통된다.

있었다. 마쓰이는 러일전쟁 이후 만주에서 일본이 처한 문제들은 ‘日支關係’에서 연유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초점은 만주로 중국 이민이 증가한 데에 있다고 보았다. 즉 ‘支那人 各界로부터 移民이 증가함에 따라 滿洲는 점점 民國의 一部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마쓰이가 보기에 당시 만주는 외몽고나 티베트과 마찬가지로 서구세력의 침입을 받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만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중요성을 두고 있었다. 외몽고나 티베트는 문화적 특색이 분명한 반면 만주는 중국인들의 대량 이주로 인하여 ‘완전히 支那化’된 결과 중국인들이 만주에 대해 ‘支那人的 領土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³ 즉 마쓰이가 보기에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이 문제시된 근원에는 만주의 ‘支那化’가 있었으며, 이에 그는 이와 관련된 만주에서 漢民族의 소장이라는 기준으로 만주사의 체계화를 시도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을 전후한 논의들은 과거 20세기 초반 만주사에 대한 조망에 비해 중국이라는 존재를 더욱 의식한 것이었다. 만주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만주사를 논하는 경우에는 물론, 과거와 같이 만주를 몇몇 세력들의 투쟁 지역이라고 조망하면서도 이곳에 미친 중국세력의 진퇴를 중요시하는 것은 국제연맹으로 대변되는 당시 국제정세가 중국의 권익을 우선하여 일본의 중국 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데에 따라 일본인 연구자들은 만주사를 연구하며 중국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의 논의는 그 초점을 만주의 중국 귀속 여부 또는 중국인의 대량 이주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이 착목한 것은 만주라는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던 중국세력 또는 만주라는 공간으로의 중국인 대량 이주에 따른 만주의 중국화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논의는 여전히 만주를 하나의 지역 내지 장소로 보고 그 역사를 사고한다는 공통의 기반에서 있었다.

한편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학계에서의 만주사 연구는 급증했다. 외무성

33 松井等, 1932, 『滿洲史要項(終稿)』, 『東亞』5-11, 35쪽.

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이 만주사를 연구하며 다수의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³⁴ 그런데 만주국의 건국은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 보장과 관련하여 만주사를 논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만주국은 국제연맹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열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국 건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즉 만주국의 건국은 연구자들에게 만주사를 거란, 여진 등과 같은 특정 종족이나 주제를 넘어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도, 중국사와는 다른, 독자적인 체제로 정립할 것을 시급하게 요청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일본인 교육자·연구자들에 의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 서술로 이어졌다. 1933년에는 야노의 『滿洲國歷史』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에서 朝鮮史學會를 중심으로 활동한 오오하라 토시타케(大原利武)의 『概說 滿洲史』가 발간되었으며, 1934년에는 南滿洲教育會에 소속된 旅順과 大連의 각급 학교의 일본인 교사들이 집필한 『滿洲新史』가 등장하였다. 특히 1935년에는 2권의 통사가 등장하였는데,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 교수 오이카와 기에몬(及川儀右衛門)의 『滿洲通史』와 교토제대 사학과 출신의 소장 연구자들이 공동 집필한 『朝鮮史·滿洲史』에서 만주사 부분이 그것이다.³⁵ 이렇게 만주국 건국 초기라 할 수 있는 1935년경까지 대거 등장했던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1940년대 들어 이나바의 『滿洲國史通論』(1940)을 시작으로, 이토오 요시카즈(伊藤義一)의 『概觀滿洲史』(1942), 토요다 요죠(豊田要三)의 『滿洲史』(1943) 등이 발간되었다.³⁶

34 이에 대해서는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 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181~184쪽; 塚瀬進, 앞의 책, 25~28쪽.

35 당시 岩波書店과 더불어 학술서·교양서 시장을 양분했던 平凡社에서는 1933~36년에 걸쳐 ‘世界歴史大系’ 시리즈를 발간했는데, 만주사에 대한 통사가 묶여 있는 『朝鮮史·滿洲史』는 그중 1권이다.

36 『概觀滿洲史』(1942)의 서문에 따르면 저자 伊藤義一은 立正大學에서 史學을 전공하고 상업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한편 新京의 滿洲事情案内所에서 발간한 『滿洲史』(1943)의 저자 豊田要三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豊田은 역사연구자는 아니라고 추측되며, 『滿洲史』는 특별한 이데올로기적인 서술없이 만주사의 추이를 담담하게 서술했다고 평가되었다(塚瀬進, 2011, 「戰前, 戰後におけるマンチュリア史研究の成果と問題點」, 『長

하지만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했던 만주사에 대한 조망과 통사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935년 2월 일본의 歴史學研究會에서는 만주사변 이후 급증한 만주사 관련 연구들의 비판적 계승과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목표로 ‘滿洲史 特輯號’를 발간하였으며, 이듬해 이를 『滿洲史研究』라는 한 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³⁷ 흥미로운 지점은 만주를 세 개의 지역과 이에 대응한 민족군으로 나누고 이들의 투쟁 과정으로 조망했던 시라토리의 논의에 대해 만주사를 하나의 일관된 體制가 아닌 斷續的인 것으로 보아 만주에는 일관된 역사가 없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이다.³⁸ 이러한 우려는 시라토리만이 아니라 만주사를 몇몇 세력의 투쟁 지역으로 바라본 모든 논의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滿洲史研究』에서는 기왕의 만주사 연구에 대해 정치사에만 치중하여 그 외의 부분은 연구의 공백 상태라고 지적하는 한편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에 대해 ‘書物の體裁를 갖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³⁹ 이와 더불어 향후 만주사 연구는 ‘滿洲族을 중심에’ 두고 이들과 ‘支那民族’의 ‘交互的作用 속에서 滿洲史의 體系가 樹立’될 수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만주족의 사회경제적 상황들을 주목해야 한다며 만주사의 체계화 방안과 향후의 연구를 전망하였다.⁴⁰

이러한 지적은 만주국 건국 이후로 만주사를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한 가운데 성급한 시도들이 속출했음을 말해 준다. 『滿洲史研究』 발간 이전에 발간된 『概說 滿洲史』, 『滿洲新史』는 물론 이후에 등장한 대부분의 만주사

野大學紀要』32-3, 59쪽).

37 歴史學研究會는 도쿄제대 사학과 출신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1932년에 결성된 학회이다. ‘滿洲史 特輯號’는 『歴史學研究』5-2이며, 1936년에 이를 『滿洲史研究』로 출판하며, ‘改訂을 요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 그러할 겨를이 없이 간행되었다’고 밝혔다.

38 三島一, 1936, 『滿洲史研究序』, 『滿洲史研究』, 4쪽.

39 三上次男, 1936,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書』を中心として見たる滿洲中世史の研究」, 『滿洲史研究』, 269~275쪽; 百瀬弘, 1936, 「我國に於ける滿洲近世史研究の動向」, 『滿洲史研究』, 279쪽.

40 三島一, 앞의 논문, 4~5쪽.

에 대한 통사들은 일본에게 만주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때에 만주국의 건국에 따라 이를 指導開發의 책임까지도 일본에 있다거나 태평양 전쟁 이후로는 만주국 건국이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만주의 과거를 정리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⁴¹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제기하며 서술된 통사들은 만주를 근거로 일어섰거나, 만주를 장악했던 주요 왕조들의 변천을 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건설, 정치 제도, 행정 조직, 강역 등의 항목에 따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서로 계승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여러 세력들이 교차하며 왕조를 건설했던 만주의 역사를 하나의 일관된 체제로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통사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더군다나 만주에서 러시아로 대변되는 서구 열강들과 각축을 벌이던 20세기 초와는 달리 만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한 1930년대에 시라토리 등과 같이 만주사를 만주, 몽고, 중국 세력들의 교차지대로 보는 것은 만주를 역사적으로 여러 세력의 분쟁 지역으로 비추어지게 한다. 또 마쓰이와 같이 만주에 미친 漢民族의 消長에 따라 만주사를 체계화하는 것은 - 마쓰이의 의도와는 달리 - 만주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보이게끔 하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만주국 건국의 역사적 정당성 및 그 독자성을 드러내야 했던 당시의 정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만주족을 중심으로 이들이 중국과 접촉한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경제적 사항들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는 만주사의 체계화와 연구에 대한 전망은 정치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당시 만주사 연구의 개선을 위해서도, 또 당대 일본의 필요성에도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통사들은 이러한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의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수준의 통사 역시 등장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들 통사들은 ‘滿洲와 支那는 征服과 被征服의 역사를 반복했다’며, 다종다양

41 大原利武, 1933, 『概説 滿洲史』, 1~2쪽; 及川儀右衛門, 1935, 「序言」, 『滿洲通史』; 伊藤義一, 1942, 「序」, 『概觀滿洲史』; 豊田要三, 1943, 「序」, 『滿洲史』.

한 민족으로 성립한 만주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으로서 ‘尙武의 氣風’, ‘活力’을 품는다거나, 만주 또는 몽고까지 포함한 ‘滿蒙’ 지역은 이러한 민족의 향토로 ‘支那本部和 대립한 특수지역으로, (支那)本部와는 전연 별개의 존재’로, ‘滿蒙 3천년의 역사는 支那史의 일부는 아니’라며, 과거의 만주에 관해서는 만주 혹은 만몽 민족의 ‘獨自의 發展史’로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⁴² 즉 만주국 건국 이후에 등장한 통사들은 만주라는 공간에 있었던 민족을 중심으로 만주사를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당시 통사들은 만주의 역사를 고대의 만주를 서술한 이후 20세기 이래 일본인 연구자들이 통구스족 - 또는 이들과 몽고 방면 민족의 혼혈로 보았던 거란까지를 포함하여 - 에 의해 성립한 국가들로 고구려 이래 발해, 요, 금, 청을 골자로 이들의 흥망을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나열하면서, 元·明代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에, 만주 또는 만주족에 대한 元·명의 공략과 만주로의 교통로, 만주에 대한 그들의 통치 방식을 서술하며, 특히 明代에는 淸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⁴³ 즉 1930년대 이후 대륙 침략을 통해 만주국이라는 국가를 배태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그 건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변해야 하는 속에서 등장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은 만주 또는 만몽의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태로 만주사를 정리한 통사로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띠는 것은 1940년에 출간된 이나바의 『滿洲國史通論』이었다.⁴⁴ 이 책은 1938년 만주

42 大原利武, 위의 책, 『概說 滿洲史』, 4~20쪽; 南滿洲教育會 編, 1934, 「凡例」, 『滿洲新史』; 及川儀右衛門, 위의 책, 1~2쪽; 伊藤義一, 위의 책, 1~3쪽.

43 일례로 『概說 滿洲史』(大原利武, 1933)의 경우 元代와 明代를 묶어 한 개의 章으로, 『滿洲新史』(南滿洲教育會, 1934)는 元代는 ‘몽고족의 발흥시대’, 明代는 당시 여진족의 상황과 淸朝의 성립 과정을, 『朝鮮·滿洲史』(矢野仁一 等, 1935)는 ‘여진족 흥망 이후의 만주’·‘建州·海西女眞 중심의 만주시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194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概觀滿洲史』(伊藤義一, 1942)는 元·明代는 물론 거란의 遼조차도 滿洲族의 방계라며, 이들의 만주 공략과 그 이후 만주족에 대한 통치 방식을 서술하고 있으며, 『滿洲史』(豊田要三, 1943)는 元·명의 초기 만주 공략과 교통로 및 그에 대한 통치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44 이하 서술한 『滿洲國史通論』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상우, 2019a, 앞의 논문, 174~181쪽 참고.

국 최고학부로서 만주건국대학의 개교와 함께 그곳의 교수로 부임한 이나바가 당시 건국대학생들에게 가르친 만주사에 대한 강의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 서명에서도 드러나듯이 향후 만주국을 이끌 만주국의 엘리트들에게 교수된 ‘國史’로서의 만주사라 하겠다. 이러한 『滿洲國史通論』의 가장 큰 특징은 ‘滿洲民族’을 설정하고, 그 소장성쇠에 따라 만주사를 서술했다는 점이다. 이나바는 ‘지금 만주국 영토 내에 古來 생존해 온 諸民族에는 부분적으로 다소의 差別이 인정되지만 대체적으로 同一民族’으로 ‘支那의 漢民族과는 완전히 별개의 系統’이라며, 이를 ‘滿洲民族’이라고 명명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肅慎, 夫餘, 濊, 貊, 韓, 烏丸, 鮮卑, 靺鞨, 契丹, 女眞, 韃靼, 蒙古 등은 ‘大同小異한 내용을 갖는 滿洲民族’으로 ‘漢族과 대립’해 왔다는 것이다.⁴⁵ 즉 다른 통사들에서 만몽민족의 혼혈 혹은 만주족의 방계라고 언급되던 거란은 물론 元을 건국한 몽고를 포함한 만주국 내의 모든 민족들을 ‘漢族’을 대립항으로 ‘滿洲民族’으로 일괄한 것이다. 또 이나바는 『滿洲國史通論』을 ‘民族의 原始 - 民族의 成長 - 民族의 發展 - 民族의 新生 - 民族發展의 復現’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五族協和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만주사를 근대 민족 국가의 역사 체계와 같은 민족사의 모습으로 치장하여 ‘만주국사’로서 서술한 것이었다.

이렇게 1930년대 이후 등장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은 몇 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의 역사라기 보다는 만주 또는 만몽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몇 가지 양상을 보인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만주사의 기원을 소급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라토리나 이나바, 마쓰이 등과 같은 이들은 만주사의 시작을 B.C. 3세기 燕秦蓋의 東胡族 정벌로 보았다. 만주를 몇 개 세력의 충돌과 교섭 과정으로 조망한 이들에게 만주와 관련된 세력의 충돌로 역사상 가장 먼저 알려진 사건에서 그 역사의 시작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만주사를 만주

45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 20~24쪽.

와 몽고의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하게 됨에 따라 그 역사의 시작은 만주에 처음 등장한 민족으로서 肅愼에게서 발견되었다.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통사들은 春秋左氏傳, 尙書, 山海經, 周書, 史記 등의 관련 고기록을 제시하며 戰國時代를 넘어 적어도 周代부터 만주 일원에 살았던 최초의 민족으로서 肅愼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렵민으로서 이들의 문화적 특징을 楛矢와 石柶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滿洲國史通論』에서는 肅愼은 山東까지 포괄했던 ‘東夷’로서, 고대 중국 문화는 이들에 의한 것이라고도 서술했으며, 이후로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거론하며 肅愼을 구석기시대 이래 만주 원주민과 연결지으며, 만주사의 첫머리에 肅愼을 위치시켰다.⁴⁶

한편 일찍이 이나바는 遼의 漢人·漢文化 수용에 주목하였으며, 金·淸을 건국했던 여진인들이 漢人化에 따라 쇠퇴했다는 논의를 전개하기도 했다.⁴⁷ 이와 같이 중국문화의 접촉과 漢化에 따라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만주국 건국 이후의 통사들이 공유하는 시각이기도 했다. 유목을 근간으로 풍부한 활력을 보였던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이 중국문화에 빠져 자신들 본연의 면목을 잃고 쇠약해지는 운명을 반복했다는 것이다.⁴⁸ 그런데 이는 만주를 지배했던 민족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상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만주국 건국 이후의 등장한 통사들은 만주의 민족들이 건국한 왕조의 문화적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특징을 보인다. 물론 당시에만 주사 연구가 정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통사들 역시 전쟁·정복으로 대변되는 정치·외교적 사건과 정치·행정과 관련된 제도·조직 등에 사항이 중심 내용을 이루며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1930년대 이후의 통사들은 적은 분량이나마 고

46 南滿洲教育會 編, 앞의 책, 2~5쪽; 及川儀右衛門, 앞의 책, 5~7쪽; 矢野仁一 等, 1935, 『朝鮮史·滿洲史』, 207~211쪽; 稻葉岩吉, 1940, 위의 책, 25~27쪽; 伊藤義一, 앞의 책, 8~11쪽; 豊田要三, 앞의 책, 2~4쪽.

47 정상우, 2019a, 앞의 논문, 171~172쪽.

48 南滿洲教育會 編, 앞의 책, 26쪽; 及川儀右衛門, 앞의 책, 2~3, 176~177쪽; 伊藤義一, 앞의 책, 56, 67쪽; 豊田要三, 앞의 책, 218~219, 222~225, 278~279쪽.

구려 이래 만주에 근거한 주요 왕조들의 문화를 서술하는 節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의 문화에 대한 서술을 빠뜨리지 않았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서 보이는 고유한 생활풍습이나 수장을 ‘칸’이라 칭하고, 중국과 교섭이 생기며 漢風으로 변모하기 이전에는 왕명 역시 고유의 지명에 근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신교적 전통에 입각한 東盟과 제천의식, 고구려와 같았던 발해의 풍속과 이후 거란과 여진, 몽고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샤먼교·多靈崇拜·自然崇拜, 거란의 捺鉢과 頭魚宴 및 元의 쿠릴타이 등과 같은 유목생활에서 연유한 풍속, 여진 고유의 軍制이자 행정 조직 또는 榮爵이기도 했던 猛安·謀克 및 이른바 ‘國粹保存, 女眞中心主義’에 입각하여 여진인 猛安·謀克을 우대하고, 여진문자를 보호했던 金의 世宗에 대한 상찬은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통사들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었다.⁴⁹

당시의 통사에서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의 문화로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바로 고유 문자였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우연히 발견된 거란문자는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공개 당시부터 만주와 몽고 방면 민족에 대한 연구에 기대를 품게 했다.⁵⁰ 193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통사들은 모두 빠짐없이 거란문자를 비롯하여, 여진·몽고의 문자에 대해 서술하였다.⁵¹ 물론 만몽 민족의 문자에 대한 서술 역시 漢字의 영향을 받았거나 漢化로 인하여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서술도 있다. 하지만 당시 학계에서 가장 명망있던 이나

49 大原利武, 앞의 책, 57~61, 112쪽; 南滿洲教育會 編, 앞의 책, 10, 33~34, 48~51쪽; 及川儀右衛門, 앞의 책, 55~57, 73~80, 120~122, 158~161, 173~184쪽; 矢野仁一 等, 앞의 책, 399~402, 405~410쪽;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51, 202~207, 217~223쪽; 伊藤義一, 앞의 책, 32~35, 65~66, 101~104쪽; 豊田要三, 앞의 책, 80, 163, 186~187, 242~244, 257~264, 307, 318~319쪽.

50 鳥山喜一, 1935, 「奉天に於ける契丹哀冊に就いて」, 『滿鮮文化史觀』, 112~113쪽. 만주사변 이후 奉天의 군벌 湯玉麟의 아들 湯佐榮의 저택에서 거란문자로 새겨진 비석 20개가 발견되었다. 학계에 이것이 처음 공개된 자리에 참석했던 鳥山은 이를 북방민족 문자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라며, 향후 이 방면 연구에 기대를 표했다.

51 大原利武, 앞의 책, 93, 112, 128~130쪽; 南滿洲教育會 編, 앞의 책, 26, 65쪽; 及川儀右衛門, 앞의 책, 117~120, 179~181, 227~228, 279~280쪽; 伊藤義一, 앞의 책, 67쪽; 豊田要三, 앞의 책, 110~111, 280~281쪽.

바나 야노를 비롯한 교토제대 출신들에 의해 서술된 통사에서는, 거란문자가 西夏, 女眞, 파스파 등의 문자에 영향을 주었다며 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방민족의 고유 문자가 존재했다는 것은 거란 이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갔다. 고구려의 왕명·지명·관명은 고유한 것으로, 이는 고구려 당시 ‘국어’의 존재를 말해 준다며, 이는 고구려 문화를 이은 발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거란 문자의 발견은 그것이 만들어진 遼代를 넘어 그 이전과 이후에 걸친 만몽 민족의 문자 생활에 대한 전망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의 ‘민족적 자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되었다. 즉 만몽의 민족이 ‘독자적인 문자로 그 사상을 표현한 것은 단순히 漢文化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자각한 결과’로, ‘金·元 各朝의 실록 편찬은’ 이들이 민족으로서 자신에 눈뜨고, 스스로를 의식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⁵²

물론 만주국 건국 이후의 통사들에서도 만주와 몽고 민족들의 고유문화는 저급한 것, 소박한 것으로 발달된 중국문화에 의해 밀려난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문화의 상실은 만몽 민족의 약화로 연결되었다는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는 만몽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저급할지언정 그들의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몽 민족 고유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서술은 만주국 건국 이후 만주사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만주 혹은 만몽의 민족을 중심으로 만주사를 정리하게 됨에 따라 민족을 정의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의 존재가 포착된 것이다.⁵³

52 矢野仁一 等, 앞의 책, 354~357쪽 ; 及川儀右衛門, 앞의 책, 117~122쪽 ; 稻葉岩吉, 1940, 앞의 책, 151쪽.

53 朴羊信, 2010, 「1930年代 日本의 ‘民族’ 概念과 政治의 交錯」, 『韓日民族問題研究』18, 34~42쪽.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大正期에 들어 ‘인종’과 ‘민족’ 개념이 분리되어 ‘민족’을 ‘역사적 개념’으로 정의하게 됨에 따라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가 열렸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확대되어 1920년대 이후 민족을 거주지, 종족, 언어, 종교, 역사, 전통, 풍속 등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민족의 본질로서 ‘민족정신’, ‘민족의식’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IV. 결어

20세기 이후 일본은 만주로의 침략을 개시했으며, 이와 더불어 일본의 연구자들은 만주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만주는 여러 민족들이 거쳐 갔으며, 역사 서술을 위한 하나의 단위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만주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은 만주사 연구가 개시되었던 20세기 초반 시라토리의 조망에서 보여지듯이, 만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 차원에서 체계화할 수도, ‘만주민족’과 같은 범주를 설정하여 민족사와 비슷한 형태로 할 수도 있었다.

만주사의 체계화와 관련하여 만주사를 다룬 최초의 통사라 할 수 있는 『滿洲發達史』(1915)는 만주사를 지역사로서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나바는 만주사에 대한 자신의 지론인 ‘만몽불가분’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만주는 몽고, 중국, 만주 방면의 세 세력들이 접촉하여 각축을 벌이는 장소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만주사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유라시아의 역사를 지리적 관계와 남북이원론에 입각하여, 만주는 아시아 대륙의 남북 경계를 포용하면서도 남북으로 연장되어 남쪽의 세력(중국)과 북쪽의 세력(몽고, 퉁구스)이 다툼을 벌이는 곳이라고 보았던 시라토리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나바는 압록강과 장백산은 국경이나 경계로서 적절치 않으며 대동강 이북 지역까지는 만주로 보아야 한다며 - 이른바 ‘만몽과 조선은 불가분’ - 장백산을 만주의 남동쪽 경계로 했던 시라토리의 논의에서 고구려사의 귀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충돌을 피해가며 만주사를 지역사로서 정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고구려사를 만주사의 범위 안으로 끌어왔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나바는 만주의 역사를 B.C. 285년 燕의 昭王이 遼河 하류 유역을 東胡로부터 탈취한 것, 바로 만주의 세력과 중국세력의 충돌을 시작으로 만주에 거쳐했거나, 만주를 장악했던 여러 세력들의 충돌과 성쇠, 만주에 대한 통치 정책 등을 서술했다. 특히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明·清代에 대해서는 그의 지론인 만몽불가분론에 입각하여 明의 만몽 분리책 및 淸朝의 성립과정, 淸朝의 만주 봉급 정책의 전개와 붕괴 과정에 이

르는 추이를 서술하였다. 이렇게 시라토리와 이나바로 대변되는 20세기 초반 일본인 연구자들의 만주사에 대한 조망과 체계화는 - 그 서술의 역사적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 역사적으로 만주를 여러 세력들이 경쟁하던 지역으로 위치짓고, 그 역사를 이러한 지역에서 벌어진 세력 경쟁의 과정으로 서술하는 것이었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만주에서 일본의 이권 보장을 위해 만주의 과거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만주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야노의 논의 이래 만주에 미친 중국세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논의가 반복되는 한편에서 만주에 미친 중국세력의 소장에 따라 여러 세력이 명멸했던 만주의 과거를 시대구분하여 통괄하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졌다. 이들 논의는 만주에 대해 중국의 우선권을 인정하였던 당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만주사의 전개에 있어 중국이라는 존재를 더욱 의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만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조망한 것이었다.

한편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만주사 연구를 지원하는 가운데 그 연구는 다시 한번 활기를 띠었다. 특히 만주국 건국은 만주사의 귀속 문제에 대한 논의를 넘어 신생국가 만주국 탄생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만주사의 정립을 요구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후 다수 등장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들은 만주사의 체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했으며, 당시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화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까지 이루어진 만주사에 대한 조망은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만주국 건국까지도 반복되었던, 만주를 몇몇 세력의 투쟁 지역으로 바라보던 歷史像은 만주사의 전개에 있어 중국을 그 구성의 주요 요소로 인정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주를 분쟁지역으로 역사화하게 되어 독립국가를 표방한 만주국 건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해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왕의 만주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정리가 시도되며 새로운 전망과 만주사의 정립 방향 역시 제기되었다. 만주사의 중심에 滿洲族을 두

고, 이들이 중국과 접촉한 과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사회경제적 상황들로 연구를 확장하며 만주사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정치사 일변도였던 만주사 연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신생국가 만주국 건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을 실현한 만주사에 대한 통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국 건국 이후 등장한 몇몇 통사들은 당시에 그저 책이란 형식만 갖춘 것이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그 수준조차 의심받고 있었다. 이러한 통사들은 만주국 건국 또는 대동아공영권 건설에 따라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지도 임무를 자임하며, 이를 위한 만주사 정리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현실적 필요를 내세우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처럼 만주국 건국 이후의 통사들은 그 수준은 물론 서술 동기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들 통사들은 만주사는 중국사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인 발전사로서 서술되어야 한다며 만주의 역사를 만주 또는 만몽의 민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통사들은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의 상무정신, 고유한 활력을 이야기하며 만주에 처음 등장한 민족으로서 肅愼을 위치지어 만주사의 기원을 더 먼 과거로 끌어올리는 한편 이후 만주의 민족이 정치세력화한 주요 왕조로서 高句麗, 渤海, 遼, 金을 서술하고, 元·明의 대 만주정책 및 淸의 흥기와 성쇠를 논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나바는 중국 漢族에 대립되는 만주와 몽고의 모든 부족들을 '만주민족'이라 규정하고, 이 '만주민족'의 흥망성쇠에 따라 만주사를 서술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주국 건국 이후의 통사들은 만주와 몽고의 민족들의 문화적 사항에 대한 서술을 빠뜨리지 않았다. 비록 만주와 몽고 민족의 고유한 문화는 중국문명에 비했을 때 저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중국문명과의 접촉 이후 밀려나는 것으로 서술되었지만 고구려, 발해, 요, 금, 원, 청의 고유한 생활 풍습과 제천의식·종교, 유목 생활에서 연유하는 풍속, 고유의 조직체제 및 이러한 고유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군주에 대한 높은 평가는 1930년대 이래 등장한 만주사의 통사들에게 공통된 사항이었다. 이러한 만몽 민족의 고유문화에 대한 서술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이들이 고유 문자

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우연히 발견되어 그 존재가 확실해진 거란 문자는 遼代를 뛰어넘어 그 이전과 이후 만몽 민족들의 고유 문자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며, 만주와 몽고 민족의 민족적 자각에 대한 증거로까지 거론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세기 이후 1945년 이전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서술된 만주사에 대한 통사를 통해 보았을 때 만주의 역사는 만주-몽고-중국이라는 삼자의 투쟁의 과정으로 그리는 지역사적인 것에서 만주국 건국 이후로 만몽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사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해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는 역사적으로 여러 세력들의 투쟁이 벌어진 장소였으며, 이곳에서 벌어진 세력 관계와 이들의 경쟁 과정으로 만주사를 바라보는 것은 남만주에서의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며, 이권 경쟁에 뛰어들었던 20세기 초반 일본의 현실을 만주사의 전개에 부합하는 역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여, 만주사의 무대 위로 일본을 소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930년대 접어들어, 특히 만주국 등장 이후, 그 건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강변해야 했던 당시 만주를 투쟁 지역으로서 보는 시각은 시의성을 상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만주사는 조악한 수준에서나마 점차 민족사의 형태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이때 만주사의 주체가 되는 민족의 경계는 만주족, 만몽 민족 혹은 '만주민족'과 같이 그 경계가 모호하며 논자에 따라, 또 같은 논자라도 경우에 따라 통일되지 못했다. 하지만 만주사를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하려는 시도는 독립국가로서 신생 만주국의 역사성을 말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만주국이라는 국가가 근대 국가 건설의 실험장이었던 것처럼 국가를 단위로 민족사를 구성했던 근대 역사학으로 무장한 일본인 연구자들이 만주에서의 이권 확보와 만주국 건국이라는 일본이 당면한 현실에 부응하며 벌인 역사 만들기의 과정이라고도 하겠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만주사를 대상으로 한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이러한 역사 만들기의 과정은 같은 시기 식민지 조선을 대상으로 했던 식민주의 역사학의 전개 과정 - 바로 단군으로 대변되는 고유한 역사적 기원과 역사 체계화 방식을 부정·해체하여 조선의 역사를 제국의 지방사로 재편했던 양

상과⁵⁴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민주의 역사학이 민족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띄고 있었으며, 과거 일본인 연구자들의 식민지 조선, 대만 및 만주 등에 대한 역사 연구와 서술에 대한 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겠다.

54 정상우, 앞의 책, 269~292쪽; 정상우, 2014, 「일제강점 말기관찬 지방사에서의 지방 구현-『大邱府史』(1943)를 중심으로」, 『東北亞歷史論叢』45; 정상우, 2015, 「일제 하 '全州' 지방의 지방사 편찬 - 『全州府史』(1942)를 중심으로」, 『韓國文化』71.

[부록] 만주사에 대한 주요 통사들의 목차

〈표 1〉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의 목차

第1章	總說
第2章	明代以前の滿洲 秦代の滿洲 / 漢人の植民地及び其の經過 / 遼東屬國の創置 / 初期の滿洲移住民族 / 慕容氏遼西に起る / 高句麗の興亡 / 渤海及び黑水靺鞨 / 契丹人及び其の建國 / 金國大に興る / 金國の衰亡及び元代の滿洲統治
第3章	明代の滿洲經營 遼河流域に創設せられたる政廳 / 初期の兀良哈關係 / 初期の女真人關係 / 永樂帝の對女真策
第4章	明代の遼東拓殖事業 東北防備の根本破壊せらる / 凹字形の邊牆 / 女真人防禦の東部邊牆 / 遼河套喪失の禍害 / 東邊展拓の要求
第5章	女真貿易の經過 明人の國際貿易觀念 / 朝貢及び貢市 / 馬市 / 對女真策の經過併に其の總評
第6章	清朝の勃興 女真人建國の經過 / 國號改稱問題 / 遼西の爭奪戰繼續す / 睿親王と史可法 / 康熙大帝の以漢制漢策
第7章	滿洲朝鮮と日本との史的關係
第8章	滿洲交通大系の變遷 滿洲の道路と季節 / 遼西道及び其の變遷 / 山東遼東及び朝鮮との交通路 / 渤海國の5大交通路 / 東蒙古の諸道路 / 宋金の交通路 / 元代及び明代の交通路
第9章	滿洲の封禁及び其の價值 明代の拓地荒廢す / 招民例の効果顯著ならず / 如何に帶地投誠を見る / 封禁政策の初期 / 柳條邊牆とは何ぞ / 封禁政策の3大因 / 長白山の定界 / 露國南下の防壁
第10章	滿洲封禁の危機到る 八旗の生計困惑す / 旗地典賣の禁行はれず / 封禁第2期の經過 / 旗人の滿洲移住問題 / 八旗屯田の成績擧らず
第11章	滿洲の開發實現す 乾隆の移民禁止令 / 蒙古王公流民を招く / 如何に漢人の拓殖力を見る / 金匪 / 滿人の特別保護權撤せらる / 朝鮮國境上の諸問題 / 呼蘭平野の招墾 / 開放されし滿洲
第12章	東蒙古問題

〈표 2〉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歴史』의 목차

第1章	滿洲を以て支那の一部なりとする國際聯盟の觀點と外務省の意見書。	第4章	滿洲國の建國とその使命。
第2章	滿洲は支那の完全な一部であるといふ支那の學者の主張を駁す。	第5章	滿洲事變の核心を論ず。
第3章	滿洲國史梗概。	第6章	日支兩國は滿洲國の獨立を協力扶翼すべし。

〈丑 3〉 大原利武, 1933, 『概説 滿洲史』의 목차

第1章	上古の狀況 1節 地形の變化 / 2節 民族
第2章	上世前期(原史時代) 3節 箕子朝鮮 / 4節 衛氏朝鮮
第3章	上世中期 5節 時代區分及概説 / 6節 遼東郡及玄菟郡 / 7節 漢族高句麗對抗時代より屬魏晉時代に至る / 8節 前燕北燕時代
第4章	上世後期(高句麗時代) 9節 高句麗中期 / 10節 高句麗末期 / 11節 高句麗の文化, 日本との關係
第5章	中世前期(唐領及渤海時代) 12節 唐領と渤海の時代區分 / 13節 渤海 / 14節 渤海の行政區劃と文化
第6章	中世中期(遼時代) 15節 遼の建國と時代區分 / 16節 創業隆盛時代及沈滯時代 / 17節 復興時代及衰亡時代 / 18節 行政區劃と文化
第7章	中世後期(金時代) 19節 金の勃興と時代區分 / 20節 創業隆盛時代及沈滯時代 / 21節 復興時代及衰亡時代 / 22節 行政區劃及文化
第8章	近世前期及中期(元・明時代) 23節 概説及時代區分 / 24節 元の勃興 / 25節 東夏(東真) / 26節 元の宋高麗征服と日本征討 / 27節 元の行政區劃及文化 / 28節 近世中期(明時代) / 29節 西方東漸の大勢
第9章	近世後期(清時代) 30節 概説 / 31節 創業時代 / 32節 隆盛時代 / 33, 34節 衰頹時代(1)(2) / 35節 行政區劃 / 36節 清の文化
第10章	最近世前期(清時代) 37節 概説 / 38節 復興時代 / 39節 日清戰役 / 40節 列國の利權獲得 / 41節 北清事變 / 42節 日露戰役 / 43節 革命の暗流と革新運動 / 44節 清國の滅亡 / 45節 日露戰役後の滿洲
第11章	最近世後期 46節 概説 / 47節 南北抗爭時代と内訌 / 48節 滿洲參加時代 / 49節 列國と支那邊疆及鐵道利權 / 50節 日支交渉 / 51節 露國と滿蒙 / 52節 中滿協力時代(極端なる排日時代) / 53節 滿洲事變と滿洲國建設 / 54節 行政區劃

〈丑 4〉 南滿洲教育會, 1934, 『滿洲新史』의 목차

總説		
第1篇 上古史	第1章	滿洲の原住民族
	第2章	上代の文化
	第3章	滿洲族の建國時代 1節 滿洲の黎明 / 2節 高句麗の建國 / 3節 高句麗の發展 / 4節 古代滿洲諸國と日本上代風俗
第2篇 中古史	第1章	滿洲族の復興時代 1節 靺鞨 / 2節 渤海の建國 / 3節 渤海の發展及滅亡 / 4節 渤海の文化
	第2章	滿蒙民族の復興發展時代 1節 遼の興起 / 2節 聖宗の中興と遼の衰微 / 3節 遼の文化
	第3章	滿洲民族の第1回支那侵入時代 1節 金の勃興 / 2節 金宋の和戰と金の衰微 / 3節 金の制度と文化
	第4章	蒙古族の勃興發展時代 1節 蒙古の勃興 / 2節 蒙古の發展 / 3節 世祖の事業 / 4節 元の衰微 / 5節 元代の制度及び文化
第3篇 近古史	第1章	滿洲族の第2回支那侵入時代 1節 清朝興起以前の滿蒙 / 2節 清の勃興 / 3節 清の隆盛 / 4節 清の文化
	第2章	滿洲族の衰亡時代 1節 清の衰微 / 2節 ロシアの滿洲侵略 / 3節 漢民族の滿洲移住 / 4節 漢民族の蒙古開拓 / 5節 滿洲に於ける日清露の關係 / 6節 我が國の滿洲保全

第4篇 現代史	第1章	軍閥暴政時代 1節 清末の滿洲 / 2節 張父子時代の滿洲
	第2章	列國の滿蒙進出 1節 英國の態度 / 2節 露國の對滿政策 / 3節 米國の策動
	第3章	滿洲人の自覺復興時代 1節 滿洲事變 / 2節 滿洲國の建設 / 3節 滿洲國帝制實施

<표 5> 矢野仁一等, 1935, 『朝鮮·滿洲史』(世界歴史大系11)의 ‘滿洲史’ 목차

第1篇	古代の滿洲 1章 滿洲の黎明 / 2章 箕子の移封 / 3章 滿洲と燕との關係 / 4章 滿洲と秦との關係	鴛淵一 집필.
第2篇	滿洲民族興起時代 1章 衛氏朝鮮 / 2章 滿鮮の六郡と其の變遷 / 3章 諸部族の興起	
第3篇	卑族の活躍と高句麗の盛衰 1章 鮮卑族の活躍 / 2章 公孫氏の經略 / 3章 高句麗の發展 / 4章 高句麗の文化と其の影響 / 5章 高句麗發展時代に於ける他の滿洲諸部族 / 6章 高句麗と隋との關係 / 7章 高句麗と唐との關係	
第4篇	渤海時代 1章 渤海國の興亡 / 2章 渤海國の文化概觀 / 3章 我が國との交渉 / 4章 渤海の疆域と渤海時代の滿洲	外山軍治 집필.
第5篇	契丹時代 1章 契丹民族とその開國傳説 / 2章 勃興期に於ける契丹 / 3章 極盛期に於ける契丹と他民族との關係 / 4章 契丹と支那文化	秋貞實造 집필.
第6篇	金代史 1章 勃興時代 / 2章 獨立時代 / 3章 金國の支那化 / 4章 滿洲に於ける金の疆域 / 5章 猛安謀克と金の國勢	小川裕人 집필. (7편 1장까지)
第7篇	女眞族衰亡後に於ける滿洲 1章 金末の滿洲と蒙古の滿洲經略 / 2章 成吉思汗諸弟の分封 / 3章 乃顔哈丹の亂 / 4章 元の滿洲に於ける領域 / 5章 元末明初の滿洲	(7편 2장 이하) 鴛淵一 집필.
第8篇	建州·海西兩女直中心の滿洲時代 1章 明代女直の種別と兀良哈三衛 / 2章 建州女直の變遷 / 3章 建州諸衛の盛衰 / 4章 明の邊牆 / 5章 海西女直の推移	
第9篇	清朝の興起 1章 努爾哈齊の興起 / 2章 努爾哈齊(清太祖)の建國 / 3章 明清の衝突と太祖の死 / 4章 太宗の功業 / 5章 世祖の即位及び北京定鼎	
第10篇	第10篇 清代の滿洲 1章 清初の滿洲 / 2章 ロシアの黑龍江流域進出 / 3章 ロシアの黑龍江左岸及び沿海州併合 / 4章 日清戰爭後のロシアの滿洲進出 / 5章 ロシアの旅順口·大連灣租借 / 6章 ロシアの全滿洲占領 / 7章 滿洲撤兵問題と日露戰爭	矢野仁一 집필.

<표 6> 及川儀右衛門, 1935, 『滿洲通史』의 목차

第1章	上代の滿洲	第4章	遼代の滿洲	第7章	明代の滿洲	第10章	滿洲國
第2章	高句麗國	第5章	金代の滿洲	第8章	清代の滿洲		
第3章	渤海國	第6章	元代の滿洲	第9章	滿洲をめぐる列國の國際關係		

<표 7>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의 목차

前編	1節 史觀と情操/2節 歴史と地理/3節 滿洲國史の時代區分
本編	第1章 民族の原始 1節 肅慎/2節 夫餘族の神話/3節 破走せる東胡/4節 古朝鮮/5節 匈奴/6節 匈奴の左腕的勢力/7節 漢四郡問題/8節 樂浪郡開設と日本
	第2章 民族の成長 1節 夫餘の政治及び法俗/2節 烏丸及び鮮卑/3節 高句麗の國家創成/4節 初期の高句麗國/5節 滅・沃沮・挹婁/6節 高句麗の通吳/7節 漢魏外交と印綬/8節 麗魏關係と日本/9節 鮮卑慕容氏遠西に起る
	第3章 民族の發展(上) 1節 高句麗大いに起る/2節 麗隋戰爭及び日本/3節 渤海國創建
	第4章 民族の發展(中) 1節 契丹の八部統合/2節 契丹人の生活/3節 燕雲の割取/4節 二元體系の政治/5節 遼宋關係と女眞
	第5章 民族の發展(下) 1節 金國興隆す/2節 女真人の生活/3節 金人の伐宋と漢人
	第6章 民族の新生 1節 蒙古民族/2節 蒙麗關係/3節 元の滿鮮統治/4節 明初の東北經路/5節 日明戰爭の影響
	第7章 民族發展の復現 1節 清太祖建州に起る/2節 薩爾滸山の戰/3節 清の第二次開國/4節 北京遷都/5節 康熙大帝の中原平定/6節 滿洲封禁政策/7節 封禁の破綻
建國前紀	1節 愛理條約/2節 實邊/3節 日清戰爭(甲午之役)及び直後/4節 蒙古問題/5節 日露戰爭

<표 8> 伊藤義一, 1942, 『概觀滿洲史』의 목차

序文	
第1章 過去の滿洲	はしがき 1節 古代の滿洲：石器時代-肅慎・挹婁と夫餘-漢族の滿洲進出 2節 高句麗國：高句麗の建國-高句麗の性格-高句麗の興亡-高句麗の文化 3節 渤海國：渤海の建國-渤海の興亡-渤海の文化-日渤の國交 4節 遼代の滿洲：遼の興亡-遼代の滿洲 5節 金國：金の興起-金の興隆-金の衰亡-金の文化-我が國と金 6節 元代の滿洲：元の興起-元の滿洲統治-元の滅亡 7節 明代の滿洲：明の興起-明の滿洲經路-明代の女眞-明の衰亡 8節 清の興起：清の開國傳説-太祖の創業-薩爾滸山の戰-太祖の死-2代太宗-明の滅亡-世祖の入關
	第2章 清代の滿洲
第2章 清代の滿洲	はしがき 1節 ロシアの侵略：シベリヤ侵略(ネルチンスク條約)-滿洲侵略(愛理條約, 北京條約, 日清戰役と三國干涉, 三國干涉の報酬)-日露戰役(旅順砲撃戰, 最後の2大血戰, ポーツマス條約, 滿鐵會社の創立) 2節 漢族の滿洲移住：順治帝の遼東招民開墾例-康熙帝の滿洲封禁-滿洲封禁の破綻-漢族流民の發展-東清鐵道敷設と漢人の招致

第3章 滿洲帝國の建設	はしがき 1節 張作霖の時代：清末の滿洲-張作霖の滿洲統-日支交渉-張作霖の中央進出-張作霖の最期 2節 滿洲事變：張父子の排日-萬寶山事件-中村大尉事件-柳條溝の滿鐵爆破-滿洲事變-上海事變 3節 新國家の誕生：各地の獨立運動-滿洲國の出現-國際聯盟の容喙-滿洲帝國の成立 4節 滿洲帝國の特質：建國の大精神-政治組織と協和會-日滿の不可分 5節 滿洲帝國の發展(躍進10年の跡を顧る)：財政經濟-産業開發方針-開拓政策-滿洲の資源-文化の躍進
結語	

〈丑9〉 豊田要三, 1943, 『滿洲史』의 목차

第1章	古代の滿洲 最古の原住民 肅慎 / 滿鮮と燕秦關係
第2章	前漢時代に於ける滿鮮 衛氏の朝鮮國 / 朝鮮四郡 / 滿鮮に於ける漢の勢力
第3章	滿洲諸部族の興起 漢の對滿政策の萎縮と滿洲諸部族 / 夫餘族 / 高句麗族 / 挹婁族 / 濊貊族 / 沃沮族 / 烏丸鮮卑族
第4章	高句麗時代 高句麗の發展 / 公孫氏の遼東に於ける消長 / 高句麗と魏との關係 / 鮮卑慕容氏の活躍と高句麗 / 新羅百濟兩國の擡頭と日本との關係 / 廣開土王時代に於ける半島を中心とする日本との衝突 / 長壽王以後に於ける盛衰 / 隋の高句麗征討伐 / 唐と高句麗との關係 - 太宗の高句麗討伐, 高宗の高句麗討伐 / 高句麗時代に於ける滿蒙諸部族 / 高句麗國の官制 / 高句麗族の生活風習 / 高句麗の宗教と學藝 / 高句麗の都城・山城・陵墓・壁畫
第5章	渤海時代 渤海の建國 / 渤海國の盛衰 / 渤海文化の特色 / 渤海國の官制 / 渤海國の地方行政區劃 / 渤海の都城と交通 / 渤海の習俗・文藝・美術・宗教・物産 / 渤海と日本との關係
第6章	契丹時代 契丹族の勃興 / 太祖耶律阿保機の契丹族統一 / 渤海國の滅亡と東丹國 / 契丹國の興隆期と對外關係 / 契丹國の衰亡 / 契丹國の疆域 / 契丹の習俗と社會 / 契丹國の中央官制 / 契丹國の兵制 / 契丹國の刑制 / 契丹の農業及び商業 / 契丹の宗教 / 契丹の文藝及び工業
第7章	金時代 完顔氏の勃興 / 太祖阿骨打と契丹の滅亡 / 金國の盛衰 / 金末の滿洲 / 金初に於ける女眞の生活風習 / 金國の疆域 / 金國の制度 / 猛安謀克的制度 / 金國の社會經濟 / 金國の貨幣 / 金國の文藝・宗教
第8章	元時代 蒙古の勃興と太祖成吉思汗 / 太宗, 定宗, 憲宗の時代 / 世祖の極盛 / 海都, 乃顔哈丹の叛亂 / 元の衰亡 / 元代の文化 / 元代に於ける滿洲の疆域 / 元代に於ける滿洲交通路
第9章	明代の滿洲 明初の滿洲と太祖の經略 / 成祖の蒙古滿洲經略 / 明代の女眞 / 明代の邊牆
第10章	清代の滿洲 清朝始祖の傳説 / 太祖努爾哈齊の活躍 / 太宗の活躍 / 世祖の北京遷都 / 清朝の滿洲統治組織 / ロシアの東亞侵略と滿洲 / 清代に於ける滿洲の開發 / 日露戰爭直後に於ける日本の滿洲經營 / 清末に於ける滿洲統治組織
第11章	中華民國時代と滿洲國 中華民國成立前後の滿洲 / 日露戰爭以後に於ける日露兩國の關係 / 英美兩國の滿洲に於ける策動 / 日支交渉と滿蒙(所謂21條問題) / 東支鐵道の回收問題 / 張父子時代の滿洲 / 滿洲國の建國 / 國際聯盟と日本の脫退 / 日滿の關係 / 結語

참고문헌

『白鳥庫吉全集』9, 10

滿鮮歷史地理照査部, 1911, 『滿洲歷史地理』

稻葉岩吉, 1915, 『滿洲發達史』

矢野仁一, 1933, 『滿洲國歷史』, 目黒書店

大原利武, 1933, 『概説 滿洲史』

南滿洲教育會 編, 1934, 『滿洲新史』

及川儀右衛門, 1935, 『滿洲通史』

矢野仁一 等, 1935, 『朝鮮史·滿洲史』

歷史學研究會 編, 1936, 『滿洲史研究』

稻葉岩吉, 1940, 『滿洲國史通論』

伊藤義一, 1942, 『概觀滿洲史』

豊田要三, 1943, 『滿洲史』

白鳥庫吉, 1907, 「歷史上に於ける滿洲の地位」, 『斯民』2-1

_____, 1933, 「歷史上より觀たる滿洲國」, 『東洋』36-3

稻葉岩吉, 1925, 「北鮮に於ける女眞語の地名」, 『朝鮮文化史研究』

_____, 1934, 「咸鏡道の地方色」, 『警務彙報』336

矢野仁一, 1930, 「日本の滿洲に於ける歷史上の地位を論ず」, 『東亞』3-1

松井等, 1930, 「滿洲に於ける日本の地位(矢野仁一君の論文に因みて)」, 『東亞』3-2

_____, 1931·1932, 「滿洲史要項」, 『東亞』4-8·5-4·5-7·5-11

鳥山喜一, 1935, 「奉天に於ける契丹哀冊に就いて」, 『滿鮮文化史觀』

Stefan Tanaka, 박영재·함동주 譯,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井上直樹, 2013, 『帝國日本と‘滿鮮史’ - 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塙書房

塚瀬進, 2014, 『マンチュリア史研究』, 吉川弘文館

신현승, 2015, 『제국 지식인의 패러독스와 역사철학』, 태학사

- 外山軍治, 1967, 「日本における滿洲史研究」, 『歴史教育』15-9·10
- 濱下武志, 2008, 「동아시아 地政文化는 성립하는가? - ‘동양사’의 출현과 근대 일본」, 『大東文化研究』63
- 朴羊信, 2010, 「1930年代 日本의 ‘民族’ 概念과 政治의 交錯」, 『韓日民族問題研究』18
- 塚瀬進, 2011, 「戰前, 戰後におけるマンチュリア史研究の成果と問題點」, 『長野大學紀要』32-3
- 이형식, 2016, 「‘支那通’ 야노 진이치(矢野仁一)의 중국 인식과 對中政策」, 『史林』58
- 정상우, 2019, 「지역사에서 민족사로」, 『만주연구』27

투고일: 2020년 8월 28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6일

■ Abstract ■

Making ‘Manchurian History’
: Japanese Historian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Jeong, Sang-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common ground Japanese historians shared about the Manchurian history and how it has changed over time, using diachronic histories of the Manchurian past they employ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Japanese historians thought Manchuria had historically been an area where several forces, including Manchurian, Mongolian and Chinese forces, struggled for power. This systematization of Manchurian history explained the ongoing competition for rights among imperialist powers, including Japan, in Manchuria in the early 20th century as a historical phenomenon consistent with Manchurian history’s development process.

However, in the 1930s, Japanese historians’ systemic treatment of Manchukuo failed to recognize the country as a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emphasized Manchukuo’s birth as a natural, historical consequence of development.

Manchurian history gradually organized in the form of nation-history, even at a crude level.

As such, the Japanese historicity of Manchukuo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hanged from local history to a national one. Just as Manchukuo was an experimental site for constructing a modern state, studies and descriptions of Manchurian history were also experiments in ‘history making’, whose effect produced an interest in Manchuria and led to the founding of Manchukuo.

Keywords: historiography of colonialism, Manchurian history, diachronic history, Manchukuo, local history, nation history